

#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eBook 시장 진출 현황

한은영\*

## 1. 개요

최근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eBook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기선을 잡은 것은 아이폰(아이폰)과 아이패드(iPad)를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뱅크(SoftBank)이며, 그 뒤를 이어 KDDI와 NTT 도코모도 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eBook을 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단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서 eBook에 기대를 걸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eBook 시장 규모 및 전망,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eBook 사업 전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의 eBook 시장 규모 및 전망

일본의 출판 시장은 시장 규모(판매금액) 면에서 1996년 2조 6천억 엔으로 정점을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정보DB센터 부연구위원, (02)570-4236, hey@kisdi.re.kr

찍은 후 보합 내지는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 2009에는 1조 9,355억 엔으로 축소되었다.<sup>1)</sup> 한편 일본의 eBook 시장 규모는<sup>2)</sup> 전체 출판 시장의 2%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2001년 4억 엔에서 2008년 464억 엔(전년 대비 130.7%)으로 급성장하였고 2009년에는 574억 엔(전년 대비 123.7%)으로 추계되었다.

일본에서 eBook은 PC나 PDA를 단말로 사용하였던 2002년경부터 각광을 받아왔는데, 이 때의 시장 규모는 10억 엔 정도였다. 그 후 제3세대 휴대폰과 패킷 정액제의 도입에 의해 시장의 중심이 휴대폰용 eBook으로 바뀌면서 eBook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일본의 휴대폰용 eBook 시장은 휴대폰 단말에서 이용되는 전자코믹(comic)<sup>3)</sup>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휴대폰용 eBook 매출액의 82%를 이 전자코믹이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단말이 PC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전용 리터로 다양화되고 이와 함께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인프레스R&D(株式会社インプレスR&D, 2010)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일본 전자서적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휴대폰용 시장은 2010년 이후 한계점에 도달해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기종을 변경

1) 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社会における出版物の利活用の推進に関する懇談会(2010)

2) 일본의 eBook 시장 규모 및 전망 데이터는 株式会社インプレスR&D(2010)의 일본 “전자서적” 시장 데이터를 인용한 것임. 이 자료에서는 “전자서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전자서적을 ‘서적과 유사한 저작권 관리가 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고, 일본 내 이용자의 전자서적 구입 금액의 합계를 시장 규모로 정의함. 단, 전자신문이나 전자잡지 등 정기발행을 전제로 한 것, 교육 도서, 기업용 정보 제공, 게임성이 높은 것은 포함하지 않음. 또한, 이용자의 전자서적 콘텐츠의 다운로드 시 통신료나 디바이스와 관계되는 비용, 제작과 관계되는 비용, 전달 사이트에 의 광고도 포함하지 않음”

위와 같이 株式会社インプレスR&D(2010)에서는 전자신문, 전자잡지 등 정기발행물을 전자서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서는 이와 관련한 매출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eBook의 개념이 광의적으로는 전자신문, 전자잡지 등 전자출판 일반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의 eBook 시장 진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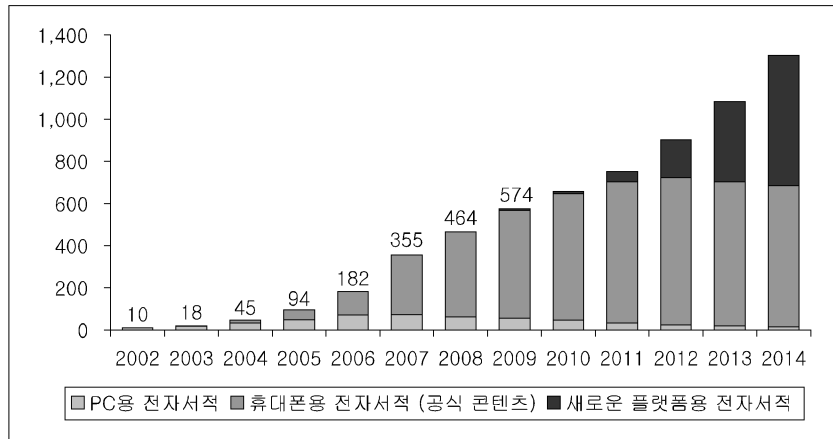
3) 전자코믹은 한 회당 50엔 정도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토탈 구매 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1회는 무료, 2회째부터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휴대폰 이용요금과 병합 징수되는 간편한 과금체계 등으로 이용이 확산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2010).

함으로써 일반 휴대폰의 공식 콘텐츠 이용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새로운 플랫폼용 전자서적 시장<sup>4)</sup>이 급속히 성장하여 전체 시장 규모가 2014년도에는 2009년도의 약 2.3배인 1,300억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플랫폼용 전자서적 시장은 현재로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전용의 전자서적 애플리케이션에 거의 한정되어 있지만, 미국 애플의 아이북스토어(iBookstore)나 아마존의 킨들(Kindle), 혹은 일본 제조사의 참여 등에 의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3년간 콘텐츠 확보, 환경 정비 등이 갖추어지면 2012년 이후에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에는 휴대폰용 전자서적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일본 전자서적 시장의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엔)



주1) PC용 전자서적 시장: PC 또는 PDA. 멀티 디바이스는 새로운 플랫폼용 전자서적 시장으로 분류

주2) 휴대폰용 전자서적 시장: 휴대폰의 공식 콘텐츠(i모드, EZweb, Yahoo!케타이)의 전자서적 카테고리

주3) 새로운 플랫폼용 전자서적 시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아이북스토어나 킨들, PC·스마트폰·eBook 리더 등 멀티 디바이스, PSP나 닌텐도 DS 등 게임기용

자료: 株式会社インプレスR&D(2010)

4) 2009년도부터 조사 대상이 된 새로운 플랫폼을 위한 전자서적 시장의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6억 엔으로 추계된다.

### 3.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eBook 시장 진출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eBook 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단말이 등장하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eBook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소프트뱅크 모바일, KDDI, NTT 도코모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소프트뱅크 모바일

소프트뱅크 모바일(이하 소프트뱅크)의 eBook 사업 전략은 eBook을 포함한 콘텐츠 전달 전담 자회사 설립, 애플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안드로이드 단말로의 서비스 확대에 요약된다.

소프트뱅크는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전달 서비스를 위해 새로이 “뷰(Viewn Corp.)”이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2010년 3월에 설립하였고, 여기에 지난 7월에는 마이니치 신문사, 덴츠, 서일본 신문사가 새롭게 자본 참여를 하였다.<sup>5)</sup> 그리고 지난 5월 소프트뱅크가 미국 애플의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발매하면서 아이패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뷰(Viewn)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제공하였다.

뷰는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터치(iPodtouch) 및 소프트뱅크 3G 휴대 단말로 30개 이상의 신문, 잡지, 텔레비전 뉴스 등을 정액요금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이패드 전용에는 30일간 450엔, 아이폰과 아이팟터치 전용에는 30일간 350엔, 소프트뱅크 휴대폰 전용에는 월 315엔으로 제공한다.

소프트뱅크가 뷰 서비스를 제공한 첫 날, 예상을 웃도는 액세스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날 이 서비스는 일시 정지되었다. 그 후, Wi-Fi 네트워크 경유에 한정된 아이패드, 아이폰/아이팟터치 전용의 서비스가 재개되었고, 소프트뱅크 휴대폰 전용

5) 증자 금액은 마이니치 신문사가 9,000만 엔, 덴츠가 5,000만 엔, 서일본 신문사가 4,000만 엔으로 합계 1억 8,000만 엔이다.

서비스는 계속 연기되어오다 10월 1일부터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sup>6)</sup>

소프트뱅크는 애플 제품뿐만 아니라 구글의 기본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단말에 대해서도 eBook 서비스를 12월 상순에 시작할 계획이다. 카도카와서점(角川書店)이나 코단샤(講談社) 등의 출판사로부터 소설, 만화, 사진집 등의 콘텐츠를 공급받으며, 개시 시에는 10만 건 이상의 콘텐츠를 갖출 예정이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소프트뱅크 북스토어(SoftBank Bookstore)”이며, 우선은 새롭게 발매하는 샤프사의 스마트폰 2기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전용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단말로 다운로드하고 화면상에서 관리할 수 있다. 서적 구입대금은 휴대전화요금과 함께 지불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수수료를 얻게 된다.<sup>7)</sup>

## (2) KDDI

KDDI가 제공하려는 eBook 사업의 특징은 단말 제조사, 콘텐츠 제공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간 제휴를 통한 eBook 에코시스템 구축, eBook 전담회사 설립, 오픈 플랫폼 구축에 있다.

KDDI는 소프트뱅크가 분 서비스를 개시한 한 달 후인 7월 1일, 소니, 토탈인쇄(Toppan), 아사히 신문사와 제휴하여 eBook 기획사인 “전자서적 전달 사업 준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신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 준비금은 3,000만 엔으로, 4사가 각각 25%씩 출자하였다. 이 회사는 서적, 코믹, 잡지, 신문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할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사업회사로 10월까지 전환될 예정이며, 2010년 내에 전자책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sup>8)</sup>

그리고 KDDI는 참가 기업이나 단말을 한정하지 않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eBook

6) CNET Japan(2010)

7) 日経速報ニュース(2010)

8) 이와 관련하여 소니는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서적 단말인 Reader의 차기 모델에서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연내에 일본에서 발매할 계획이다. 또한 KDDI도 전자책 전용 단말의 연내 발매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문사나 출판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콘텐츠 기업들이 안심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응 포맷이나 e-Book 스토어 등을 오픈함으로써, 아이패드나 킨들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sup>9)</sup> 한편 KDDI는 플랫폼이나 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 (3) NTT 도코모

NTT 도코모(이하 도코모) 역시 소프트뱅크나 KDDI와 같이 eBook 전담 신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도코모가 추진하는 eBook 사업의 특징은 종이책과 eBook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콘텐츠와 단말의 개방화 전략에 있다.

도코모는 지난 8월 4일 휴대 단말 전용의 eBook 비즈니스를 위해 대일본인쇄(DNP)와 제휴하였다. 양사가 공동으로 사업회사를 설립하고 콘텐츠 수집, 전송, 전자서점의 운영을 일괄해서 다루는 eBook 서비스를 이번 가을부터 제공하게 된다. 도코모의 5,600만 명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네트워크의 기술, 과금·결제 플랫폼과 대일본인쇄의 서적 디지털화 기술, 대일본인쇄의 오프라인서점(마루젠, 즐크당, 분쿄도 등)/온라인서점(bk1)/전자서점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시킨다는 전략이다. 10월 말부터 11월을 목표로 약 10만 점의 전자출판 콘텐츠를 정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서점을 오픈하고, 도코모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형 단말, eBook 전용 단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의 eBook 사업의 특징은 종이와 전자의 양쪽 모두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양사는 “리얼×전자”, “오픈×멀티”를 키워드로 eBook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리얼×전자”란 리얼서점과 eBook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휴하는 것을 뜻하며, “오픈×멀티”란 플랫폼을 개방하여 다양한 포맷,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양사는 우

9) MM総研 I Tレポート(2010)

선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 공통화, eBook에서 도서의 일부만을 공개하여 서점으로 유도하는 방법, 책과 eBook 콘텐츠의 결합판매, 그리고 책과 eBook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책꽃이’ 서비스, ‘책갈피’ 기능을 탑재해 단말 간 독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코모는 향후 대일본인쇄 외 타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eBook 콘텐츠도 확보하고, 일본뿐 아니라 해외로의 전송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도코모는 일본의 전자책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발할 각오를 밝히고 있다.

NTT 도코모는 2010년 10월 하순~12월 하순에 걸쳐 동사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eBook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에서 얻은 경험이나 의견을 반영해 2011년 초에 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sup>10)</sup>

#### (4) 종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사업자마다 특정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eBook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모습이다. 또한 더 많은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 듯하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도코모의 경우 eBook 성장이 기존 종이책 시장을 소멸시키는 방향이 아닌 상생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리얼서점과 eBook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동통신 3사가 2010년 가을~겨울에 걸쳐 본격적으로 eBook 사업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일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eBook 시장은 2011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의 <표 1>과 [그림 2]는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eBook 사업 개요 및 가치사슬을 요약한 것이다.

10) 日経ニューメディア(2010)

<표 1> 일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eBook 사업 개요

	소프트뱅크 모바일	KDDI	NTT 도코모
서비스 개시	2010. 6. 1.	2010년 내(목표)	2010년 10월 하순~ 12월 하순 시범 서비스 2011년 초 본 서비스
제휴 관계	- 미국 애플 - 마이니치 신문, 덴츠, 서일본 신문 - 카도카와서점, 코단샤 등	- 소니 - 토탄인쇄(Toppan) - 아사히 신문	- 대일본인쇄(DNP)
주요 특징	애플 제품에 “분” 서비스 제공, 안드로이드 단말로의 확대	참여 기업과 단말을 한정하지 않는 오픈 플랫폼 구축 예정(포 맷, e-Book 스토어 등 개방)	종이책과 eBook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콘텐츠와 단말의 개방화 전략
사업 내용	- 신회사 “분(Viewn Corp.)”을 2010년 3월 설립 - 6월부터 아이패드, 아이폰, iPod touch 전용 분 서비스 개시 - 안드로이드 단말용 SoftBank Bookstore를 2010년 12월 개시 예정	- 2010년 6월에 제휴 기업들 과 4사 연합 형태로 전자서 적 전달 신회사 공동 설립 - 참가 기업이나 단말을 한 정하지 않는 오픈 플랫폼 구축 예정	- 2010년 8월 도코모와 대일 본인쇄가 전자출판 비즈니스 제휴를 발표하고 공동 사업 회사 설립 - 종이와 전자의 양쪽 모두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서점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 일본 eBook 시장의 가치사슬



자료: ATLAS(2010)



## 4. 결 어

미국의 eBook 시장은 아마존 킨들의 등장으로 촉발되었고 애플 아이패드의 등장을 통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의 eBook 시장은 2010년이 여명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제 막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 eBook의 시작은 PC나 PDA를 단말로 사용하였던 200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04년에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eBook 단말과 eBook 서점을 선보이고 운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eBook 시장이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출판 시장이 안고 있는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다. 일본의 출판 시장에서는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하는 서적 도매상<sup>11)</sup>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도매상들이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e-Book에 대해 부정적이었기에 출판사들도 e-Book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sup>12)</sup> 또한 일본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있어 출판사가 정가를 유지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eBook이 인쇄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sup>13)</sup> 따라서 eBook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았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일본 시장만의 독특한 eBook 활성화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통신 3사는 eBook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음성수익 성장의 한계에 달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eBook을 통한 수익다각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eBook 시장에서는 아마존과 애플 등이 콘텐츠와 단말 시장을 지배하

11) 일본의 서적 도매상은 단순한 도매상이 아니라 서점으로부터의 반품기능, 도서대금 선입금 등의 금융기능, 신규도서의 출판부수/재판부수 등을 예측하게 해주는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출판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 결과 서점에 공급되는 전체 서적의 약 90%가 이러한 도매상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KT경제경영연구소(2010)

12) 일본의 출판 시장 구조가 eBook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KT경제경영연구소(2010)와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참조

13) 노무라 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는 「지금부터 정보·통신 시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2010년 판」에서 일본 시장의 eBook 보급 과제로 저작권 처리 문제, eBook의 표준 포맷 미정립,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거론하였다-“離陸する電子書籍ビジネス(4):日本市場の行方”(2010)

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순히 비음성 수익을 위한 콘텐츠 전송 파이프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와 단말 제조사들을 아우르면서 네트워크 접속수익만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면서 추가수익을 노리고 있다.<sup>14)</sup>

한편 기존 출판 시장이 매년 축소되어 가고 있는 데다 eBook의 활성화가 종이 출판물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싸인 출판·인쇄업계는 eBook 시장의 성장 잠재성을 깨닫고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가고 있다. 더군다나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의 유력한 eBook 사업자들의 일본 진출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eBook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일본 출판 시장의 구조나 제도가 아직은 eBook 시장의 성장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대되는 eBook 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관계 부처(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가 eBook의 이용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출판 업계에서는 eBook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에 31개 출판사들이 모여(사)일본전자출판사협회를 설립하였다.

eBook 관련한 시장 구조나 제도가 정비될 경우 일본의 eBook 산업은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고도화, 단말 보급, 모바일 콘텐츠 수요 등에서 이미 eBook의 성장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에 대한 오픈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eBook의 성공은 누가 더 많은 단말을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동통신 각 진영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 ATLAS(2010) 참조.

## 참고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日 전자서적(e-book) 시장 동향”,  
[www.kocca.kr/knowledge/trend/abroad/\\_\\_\\_/07/.../Issue\\_Japan\\_11.pdf](http://www.kocca.kr/knowledge/trend/abroad/___/07/.../Issue_Japan_11.pdf).
- ATLAS (2010). “개화기에 들어선 일본의 eBook 시장, 이통사들의 역할에서 차  
이…최근 동향과 시사점”, 2010. 8. 30.
-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미국과 일본 e-Book 시장의 향방과 전망”,  
[www.digieco.co.kr](http://www.digieco.co.kr).
- 《CNET Japan》, (2010. 9. 27), “ソフトバンク、携帯電話向け「ビューン」を提供開  
始-10月1日より”.
- MM総研 I Tレポート (2010), “Market診断 国内電子書籍市場の黎明-携帯キャ  
リア3社の動向”, 2010. 8. 25.
- 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社会における出版物の利活用の推進に関する懇談会 (2010),  
「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社会における出版物の利活用の推進に関する懇談  
会報告」, 2010. 6. 28.
- 株式会社インプレスR&D (2010), “電子書籍ビジネスに関する調査報告書を3冊同時  
発売”, 2010. 7. 7(<http://www.impressrd.jp/news/100707/ebook2010>).
- 日経ニューメディア (2010), “NTTドコモの電子書籍サービス、ネットワーク負  
荷を考え慎重に開始へ”, 2010. 10. 11.
- 《日経速報ニュース》, (2010. 11. 4), “ソフトバンク、アンドロイド端末向け電子  
書籍サービス12月上旬開始”.
- “離陸する電子書籍ビジネス(4):日本市場の行方”, 2010. 1. 15,  
<http://blogs.itmedia.co.jp/business20/2010/01/post-bbd7.html>.